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2월 28일 (제77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둥 우 컬 럼

무리하지 말자

얼마 전 주일, 먼저 소천한 목회자들의 사모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점심 한 끼로 무슨 위로가 될까 싶지만, 안부라도 묻고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들을 만나기 전, 나의 마음은 참 착잡했다. '왜 그렇게들 일찍 갔을까? 뭐

가 급해서 그리 빨리 갔나?' 생각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무리했구나.' 그렇다. 그들은 무리했다. 물론 주의 일을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지만, 육체가 있는 인간이기에 몸이 견디지 못한 것이다. 어언 70년 인생을 살면서, 그 중 30년 목회를 하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매사에 무리는 죄요, 곧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남 얘기할 것도 없다. 무리하는 것에는 내가 제일이다. 나는 늘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었다. 쉬면 죄라도 짓

는 양 일중독이라 불릴 만큼 쉬지 않고 달렸다. 그래서 물론 이론 것이 많다. 그러나 과로로 여러 번 쓰러졌었다. 세월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 그러나 인생이란 자동차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과속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 조절을 해야 한다. 명언 중의 명언은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라'는 말씀이다. 과식, 과로, 과욕, 과속... 이는 마귀의 유혹이다. 나는 이제야 그 말을 실감하고 절대 무리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상담하는

일도, 주일에 몇 차례 설교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요, 지혜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금이 가면 쓸 수 없다. 우리 속담에 '물새는 기왓장 같지 않다 대들보가 썩는다'는 말이 있다. 다시 3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비에 새길 말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우리 몸 잘 챙겨서 30년 다시 가보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육체라 하셨음을 깨닫자(마16:26). Let's begin again!

2014년 12월 마지막주
Rev. Comer Stone Lee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6)



어느길도 물어보고 돌아리도 두드려라

이번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목회자세미나를 마친 뒤, 곤잘레스 목사의 제안으로 현지 목회자들과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민호 목사가 운전을 하고 골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니 2시간이 넘도록 골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 목사가 길을 잘 몰라 헤매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그곳은 내비게이션도 없는지라 길을 물어 물어 가는데, 골프장을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거늘 건물 수위들이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묻다보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낼 수밖에요. 더욱이 교통정체까지 극심한지라 우리는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한고로 18홀을 다 돌지도 못하고 나와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이렇듯 중요합니다. 목회 30년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발가벗은 채로 껴안고 잠을 자는데 폭풍한설에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습니다.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참 망측한 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발가벗은 채이지만 다른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 자는 것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누구의 노선을 따라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했던 그 목사님의 노선을 택했고, 오늘까지 그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골프장 가는 길이 있듯이 성공으로 가는 길도 있고, 건강으로 가는 길도 있고, 행복

무엇을 먹어야 병에서 낫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병에서 낫는 법, 건강해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최종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 그 곳에서 오신

의의 길이 있고, 거룩함의 길이 있으며, 치료와 건강을 얻는 길이 있고, 복과 형통의 길이 있고, 부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해서, 아니면 고행을 해서 발견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용서와 의의 길이 되고, 거룩함의 길이 되고, 치료와 건강의 길이 되고, 복과 형통의 길이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탈하면 전복되듯, 천국 길에서 이탈하면 인생이 전복되고 맙니다. 영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여기에 응용하면 안 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많지만, 천국은 오직 외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

비상이나 추락이나 만남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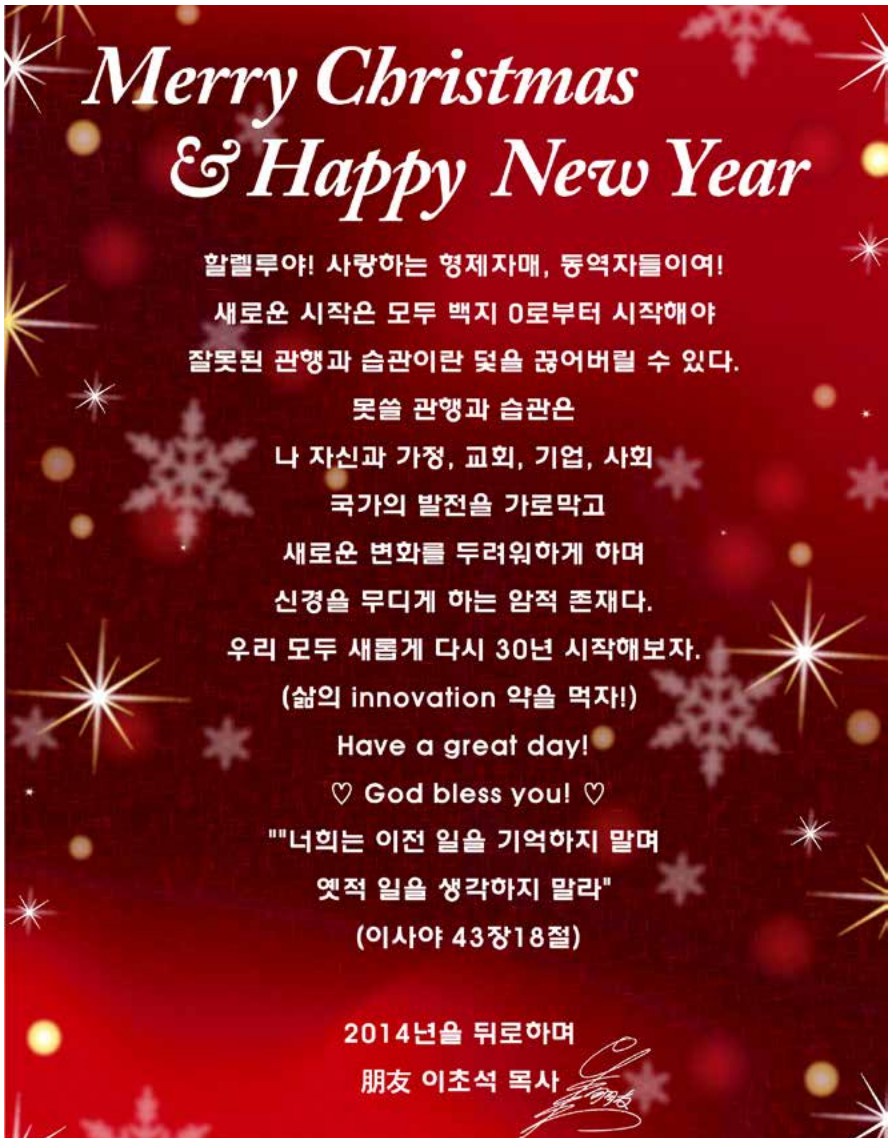
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신30:17~18).

목회 30년 동안 저도 참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라는 말만 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 받지 않고 편히 목회할 수 있다는 유혹도 있었고, 돈으로도, 여자로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마귀의 계계임을 알기에 그 때마다 더욱 기도하여 이겨냈습니다. 그럼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벧전5:8~9).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 천국에 무사히 이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므로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천사가 수종 들며, 천군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운전하니까 세미나 장소에 헤매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기간 내내 그 사람으로 운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평생 놓지 말아야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분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이제 0에서 다시 3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단은 오직 예수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 분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 30년을 맞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분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에 갈 때 신 목사가 길을 몰라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합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떤 자를 믿어야 한다고, 어떤 자의 말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용서받는

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밋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대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미나장으로 갈 때 신 목사가 큰길로만 가려하니까 차가 많아서 더 막힙니다. 그런데 현지인이 골목골목 가니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또한 길을 가다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냐,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 하고 유혹이 따릅니다. 그 말에 솔깃해서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레일을 이

모르는것이부끄러운것이고 물어보는것은자혜다

으로 가는 길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다하더라도 그 길을 잘 아는 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길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우리가 필리핀에서 고생한 것처럼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성공한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한 사람하고 함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해본 자가 성공하는 길을 알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국민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던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불치병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와

유일한 나의 멘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30년 동안 목회자로, 또한 사도로 사용해주시는 것을 이곳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와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바쁜 일과들, 그리고 목사님의 정확한 결정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보낸 시간들, 정말 인생이란 짧은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이나 단체에 있어 30년이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만, 목회사역에 있어 30년은 신기원이라 불릴 만큼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전문적 활동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온 것을 기념하는 일이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념이란 특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수십 년간 끊임없이 사역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존경의 표시입니다.

목사님은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

추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정직하고도 사심 없이 섬겨온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성한 예배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타협도 없이 사역해온 30년은 아주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란 바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세계의 많은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 인생에 끼친 목사님의 초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목사님의 많은 지원과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목사님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고, 건강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며, 눈부신 색깔의 꽃처럼 목사님의 눈을 빛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의 모든 사역은 본질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욱 근접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더 오래오래 사역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러시아어 통역관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결과가 과정을 대변하죠!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긴 세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 세계 72개국에 뿌리신 수많은 열정의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곳 일본 땅에는 크지는 않지만 저 같은 자를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2007년 제11회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 때 통역을 담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때 목사님을 보면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참 종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동시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큰 믿음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열심과 정성을 쏟아내시며 온몸은 땀 젖은 채 땀을 뚝뚝 흘리시며 열정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뒤편 통역실에서 통역하며 바라보니 그 흘리시는 땀방울은 제 눈에는 땀방울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을 깎아서 흘리시는 눈물로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찬 수건을 들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닦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참고 통역을 계속할 때에 한 여인이 수건을 들고 나와서 목사

님 발을 눈물로 닦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온몸이 젖도록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니 통역하는 저 까지도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말씀이 끝났는데도 흥분되어 뜨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꼭 잡은 주먹이 펴지지를 않아서 반대편 손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편적도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출애굽 영화 같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모세처럼 혼자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빌딩높이 정도 되는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를 막고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건너편에 있던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서야 합니다. 그래서 엄습해오는 쓰나미 같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기도로 막아주셔야 저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영의 꼴로 우리를 먹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어 통역관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감사를 모르면 개, 돼지죠!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에 즈음하여 저는 목사님께 오직 눈물로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

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신 목사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혈혈단신으로 남미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였습니다. 스페인어도 제대로 못하던 저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겨우 어느 교회에 초청받고 간 날, 소리 지르며 요동하는 귀신을 쫓게 되면서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선교에 자리를 잡아갈 무렵,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소속교단에서 저를 러시아로 보낸다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끈 떨어진 것처럼 전전긍긍하다 마지막 선택으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때 오직 저의 꿈과 비전만을 보시고 믿어주신 목사님, 지금도 처음 만남에 만불이란 거액을 순순히 내어주시며 집회를 준비하라 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미 선교 15년,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들은 정말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때는 목사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가 잘나 일색인 양 교만했던 때도 있었고,

저의 속 좁고 거친 성격으로 목사님과 팀원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며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정말 눈물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미란 한국에서 가장 먼 지구 반대편의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먼 길을 자주 방문해주시고, 저를 사용해주시며, 153구제물품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변함없이 교회에 필요한 물품도 부족함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은혜, 진실로 값을 길이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목사님이 더욱 건강하셔서 남미 24개국 가운데 아직 우리 발길이 닿지 않은 나머지 15개국과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강둑을 걸을 때, 그 얼음이 모두 녹아 수많은 사람들로 변하던 꿈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으신 후, 저보다도 더 그 꿈을 믿고 남미 선교에 매진해 오신 목사님의 믿음은 저의 소중한 본보기입니다.

이제 다시 30년을 새롭게 뛰신다는 목사님의 선포가 저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남미 선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목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스페인어 통역관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이현숙 선교사

이런 목사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던 불신자의 상태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

은 1998년 겨울, 사석에서였습니다. 찾아뵈면 목적은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차별화되지 않은 무형의 상품을 갖고, 더욱이 외환위기와 같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성공요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의 직권적인 계획하에 본인은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다수에 걸쳐 해외 집회를 수행하는 등, 분에 넘치는 기회를 접하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씀이 목사님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주지역에서는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집회를 방해하느라 교리에 대한 비난은 물론 허구로 가득한 명예훼손 및 거짓광고를 하여도 항상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인도 자그달푸르에서는 40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낮, 밤으로 집회를 인도하시어 극도의 탈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마지막까지 안수를 하였고, 뉴델리에서는 보안기관에서 테러 및 암살의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경찰력을 파견하면서 절대 군중들 사이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였음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는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본인이 처음으로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게 되자 총회장 목사님은 수일 밤을 주무시지 않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집회시작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약 3시간 동안 장대비가 쏟아져 주최 측 관련인사 및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우산을 받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해도 비를 맞으시면서, 심지어는 집회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시면서 육성으로 마지막까지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예정되었던 목회자 세미나 일정이 지역 유지 자체의 결혼식과 겹치게 되자 95%의 참석 예정자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총회장 목사님께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러 가는 것이야." 그 외에도 상상조차 힘든 시련, 배신, 인신공격,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무한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는 일정으로 일 하고 계십니다.

한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된 1인 교회가 30년 만에 외형만 대형이 아닌 견실한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는데, 이제 새로운 30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전무후무한 글로벌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어 통역관 임윤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분



해외집회를 다녀온 후면 교회에서 만 나 게 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전략전술, 그리고 심지어 실제 전투조차도 목사님 혼자 다 하신다. 이는 비단 해외사역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이 밤에 맞도록 눈물로 애통하며 사력을 다해 치룬 일이건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신다. 그러나 나는 또한 목사님의 이러한 고백이 거짓 없는 진실이라 믿는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가는 곳에 함께 붙어있었기에 동일한 상을 주신다. 정말 나는 내 이름(은택)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오직 감사할 뿐이다.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자신과 싸워 이긴 분”

내가 목사님을 만나 일하게 된 이후로 목사님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변한 건 세월의 흔적뿐이다. 여전히 하루를 기도로 채우고 계시며, 어떤 일이든 지극히 작은 일조차 혼신을 다하는 모습 그대로다.

어떤 각오를 하고 며칠, 몇 주 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을 한결 같이 같은 자세로 달려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오로지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 믿는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당히 ‘나를 닮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한 바로 이점이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희망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묵숨보다 중히 여기며 기도의 무릎을 멈추지 않는 종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종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한, 이 교회는, 이 교단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버릇처럼 외치시듯,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그리고 예수중심교회 창립 30주년을 벅찬 가슴으로 축하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향후 30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단 교회에 행하실 크신 일들에 무한한 기대로 들뜬다.

해외선교팀 한은택 실장

둘세(Dulce) 선교사의 고백



30년 전에 쓴 화살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 무엇이 넘치고 부족했는지 감사하는 마음과 시리고 아팠던 날들은 목사님께 채워져 더욱 성장과 발전, 희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햇살이 빛으로 자라게 해주신 30년의 사역, 이 피의 발자국 따라 걸어오신 길이 있기에 더욱 귀합니다.

이 땅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그림자를 따라온 저희들은 너무 복된 자였기에 급하고 어려울 때 목숨도 같이 하는 남미 선교팀이 되었고, 남미 선교를 통해 우리 “로얄팀”들은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 호흡을 같이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언어는 “격려”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이 “격려”라는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멋진 작품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정말이지 시들어 가는 영혼들이 팔딱팔딱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

로 목격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에 박수를 보냅니다.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시고, 복음을 들고 가는 나라마다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하시는 그 능력, 나는 죽고 남을 살리시는 역사의 순간들이 하늘나라에 분명 찍혔으리라 믿어요.

남미 선교 10여년 만에 남미가 살고, 이제는 중미를 살리시기에 바쁘십니다. 이 땅에서 복된 자는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그분과 한 길 가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 그런 복을 받게 되어 내 평

생 여한이 없어요. 어언 내 나이 70,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무한대로 살아가시는 그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종이시며, 순복할 수밖에 없기에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섬기며 갈 것입니다. 신들메 들기에도 부족한 나를 허락하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하지만 우리에게겐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새롭게 시작합시다.

중남미선교 로얄팀 Dulce Kim

나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가까운 분으로부터 한 가지 제의를 받았죠.

“유학을 보내줄 테니 그 전에 먼저 교단을 옮겨보지 않을까?”

그분 생각에는 정통(?) 교단에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남들에게 ‘이단이다, 사이비다’ 손가락질 받는 곳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안타까움도 있었

겠지요. 단순히 건네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연계한 제안은 구체적이었고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그 제안은 전혀 솔깃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렸기 때문이었고,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런 제안이 다시 주어진대도 저는 주저 없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때의 선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가족에게도 내비친 적이 없는 속내를 어찌 아시고 이역만리 외국 집회 중에 걸어오신 한통의 전화를 결코 잊지 못합

니다. 성도가 목사님 드시라고 정성들여 캐온 그 귀한 산삼을 어린 제자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배움도 짧은 저에게 되레 신학교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나,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 그 관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중심교단에 속해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총회장님께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가르침을 받으며 목회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총회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

까! 그런데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총회장님을 통해 참된 목회는 낙타 무릎과 눈물로 짓무른 젖은 눈을 통해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졸업장이나 배경이 그의 됴됨이, 인격과 영성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요, 그의 삶과 그의 열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총회장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감추드립니다! 제게 있어 총회장님은 주님께 서 제게 주신 최고의 자랑입니다. 저도 목사님이 잘 선택했다 자랑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경기 예수중심교회 신현명 목사

Let us Rebegin! 2015년, 첫 집회

신년축복대성회: 2014년 12월 31(수) ~ 2015년 1월 2일(금) 저녁 8시 KBS 88체육관
문의 02-533-9191, 1600-0688